

보도해명자료 (19. 1. 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**최저효율제 도입, 납 사용 제한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,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** (한국경제, 매일경제 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**최저효율제 도입, 납 사용 제한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,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**입니다.
- 1월4일 한국경제 <태양광 ‘중국산 독식’늦게나마 막겠다는 정부>, 매일경제 <태양광 최저효율제 도입, 저가 중국산 범람 방지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정부가 국내 태양광 발전에 대한 **중국산 독식을 막기 위해 ‘최저 효율제 도입’을 추진**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정부가 검토 중인 ‘최저효율제 도입’은 **특정 외산제품을 막기 위한 정책이 아님**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문의: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용필 과장/양정식 사무관 (044-203-5361)
신재생에너지보급과 진병근 과장/황인택 사무관 (044-203-5374)